

# KOICA 사업사례에서 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 방안

문상원 (KOICA 사업총괄팀 팀장)

## 목 차

1. 들어가며
2. 미얀마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4.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5. 결론

## 1. 들어가며

개도국 빈곤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확산은 중요하다. 개도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할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낮은 노동생산성의 주요 원인은 낮은 기술능력에 기인하며, 기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기존의 기술훈련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직업교육훈련은 개도국 국민 및 산업체의 생산성 제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실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는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농촌,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작업장에서의 권리 및 산업안전 보건분야, 고용 및 산재 보험 등 사회안전망 분야 등도 역시 연계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즉, 사회보호제도를 통해 열악한 일자리에 취직하지 않으려는 자발적 실업자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 고용률 증가로 이어진다.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즉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경향은 개도국의 일반적인 경우이다.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은 첫째,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기술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인력 수요를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고용자가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도국에서 현재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보완 및 업데이트되지 않아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도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성공 요인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수립한 정책과 강력한 시행이었다. 정부는 우수한 인재들을 산업화하기 위해 공과대학과 기계공고, 직훈련 등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시설장비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해외원조와 차관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다.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로부터 교육훈련 차관을 도입하여 24개의 공법인 훈련원을 설립했으며 차관은 전적으로 훈련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활용되었고 정부는 부족한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의무훈련제(levy system)를 도입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국가가 보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인적자본 확충에 노력했다. 그리고 경제발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외 차관은 조기 상환되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질 관리 기제로서 직업훈련 교사의 양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정부는 향후 훈련시설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교사양성훈련원을 먼저 설립하였다. 잘 훈련된 양질의 교사는 모두 새로 건립되는 훈련원에 집중 배치하여 교육훈련을 담당케 함으로서 산업인력 양성·공급이 차질 없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1973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고등학교, 공과(기술)대학 등의 졸업생에게 의무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것과 학사운영을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술 및 기능분야의 교육훈련 질 관리를 가능토록 하였다. 동시에 국가기술자격제도는 학교 등 정규교육에서 소외된 기술/기능 인력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능력개발의 정책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우 개방적인 등급체계(기능사보(최하위자격)-기술사(최상위등급))를 운영함으로써 회사 등 학교 밖에서도 개인의 상황을 반영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은 사회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사회보호 장치(social infra)로서의 기능에 더하여 국가 경제개발 계획과 연동된 제도로서 수요가 확보된 경제정책을 반영한 산업인력 수급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직업교육훈련정책과는 다소 차별성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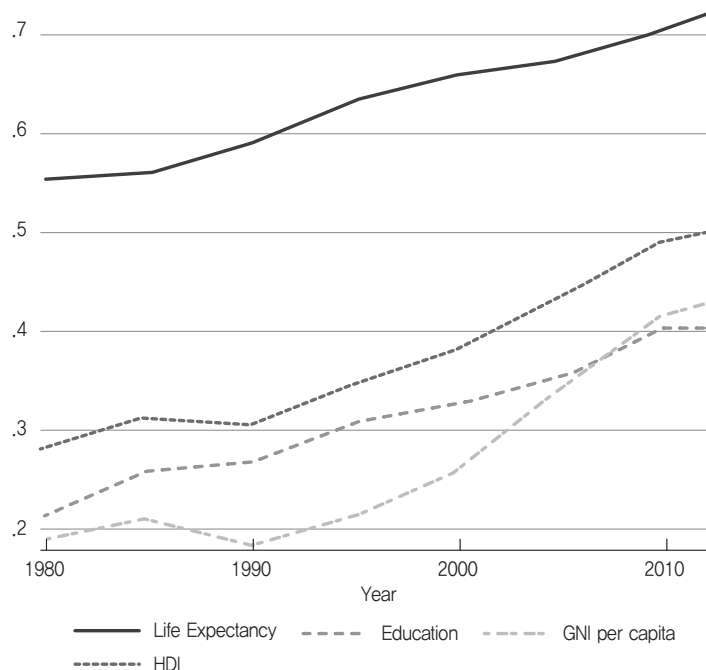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선진화된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실업고, 전문대, 직업교육훈련특별법 등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이 크게 기여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정부와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협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KOICA 직업교육훈련교육이 지원되었던 국가 중 이러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의 교훈을 바탕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성과가 있었던 국가(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베트남) 사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요인들과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 2. 미얀마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 가.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현황

미얀마는 2009년 이후 매년 5~6%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GDP가 856불 정도이다(ADB, 2012a). UNDP의 2010년 가구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4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용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수의 국민이 절대빈곤 상황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DFID, 2012). 미얀마의 빈곤율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총 인구의 25%가 빈곤층에 속하며 실업률은 2005년 34%에서 2010년 37%로 증가하였다. 인간개발 역량을 측정하는 인간 개발 지수는 2012년 0.498로 187개국 중 149위에 해당한다. 아래 그림에 보는 것처럼 1980년 이후 인간 개발 지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특히, 교육 분야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 미얀마 인간 개발 지수(1980~2012)



총 인구의 40%가 15~28세, 25%가 유년기로 향후 근로연령층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교육기회 부재 및 높은 진학 포기율로 인력양성이 어렵다. 총 국가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 3.74%(2011~12) → 6.26%(2012~13)로 국가예산 중 교육 분야 배분율은 증가 추세이나, 예산의 90% 이상이 공무원 임금 및 기타 주기적비용에 투입돼 교육에 대한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총 14개의 부처가 교육 및 학교운영에 관할하지만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총체적 관리 메커니즘은 부재하다.

직업교육훈련(TVET)을 통한 훈련 및 기술제고 기회 확장은 고용창출 및 저임금·빈곤층 노동층을 포용하는 포괄적 성장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자 고등교육과 함께 미얀마 사회경제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직업교육훈련의 질 및 거버넌스 문제<sup>1)</sup>는 여전히 난제이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의 질 문제이다. 기술 및 기능분야의 교육훈련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자격검정제도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TVET의 질 관리 기재의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거버넌스 문제이다. 직업교육훈련제도가 국가차원에서 통일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요구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 수준의 TVET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중심의 교육과정도 마련되고 있지 못하여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제도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다. 셋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지 않은 상태이므로 산업현장 등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된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고 있지 못하다. 고등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등록률은 점점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초등교육생의 약 20% 수준만 남고 있다.<sup>2)</sup>

훈련기관 및 교육과정별로 교육의 질이 광범위하게 불균형해 교육의 질에 대한 통제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동력이 되는 고성장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은 2015년 ASEAN 경제커뮤니티 진입 대비 국제시장 경쟁력 제고에 필수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를 즉각 반영하는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 및 적정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이 중요하다.<sup>3)</sup>

## 나. 사업개요

대상 사업 명	미얀마 자동차 정비 기술훈련원 건립사업
기간	2010년~2011년
사업 목표	미얀마 자동차 직업기술훈련 분야 시설 기반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숙련 기능 인력 양성 및 고용 증대

1)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TVET)은 1996년까지는 교육부(MOE)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나 1996년 이후 과학기술부(MOST)로 주도권이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 산업부, 노동부, 협동조합부, 축산수산부 등 각 부처별로 TVET 관련 기관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2) Myanmar Authority (MOI) Interview

3) 현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흡수하는 노동력이 매우 높은 상황임. 일례로 농업관개부 소속직원만 7만 명 이상

대상 사업 명		미얀마 자동차 정비 기술훈련원 건립사업
사업 내용		정규과정의 자동차 종합직업훈련원 건립 훈련원 건축 지원 공과: 정규과정 4개 모듈 및 특별과정 2개 모듈 <sup>4)</sup> 기자재 지원: 공과별 기자재 및 사무용 기기 전문가파견: 공과 운영 및 기술훈련 초청연수: 공과별 교사훈련
	사업 규모	300만 불
대상 지역		미얀마 마그웨이
수혜자		미얀마 청소년, 실업자, 공업부, 마그웨이 지역 주민
시행 기관	한국	KOICA
	미얀마	공업 2부 (The Ministry Of Industry 2)

## 다. 사업성과 분석

미얀마는 국가발전 전략 최우선 정책으로 자동차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관련 부품산업 발전 및 기능공 양성을 우선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공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본다. 미얀마는 18개 산업단지 중 중부지역에 위치한 마그웨이(Magway) 산업단지를 자동차제조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트럭제조공장 건축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KOICA에서는 마그웨이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2010~2012년 사업으로 Magway 자동차 직훈련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 개원한 직훈련원은 신기술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서는 이를 선도 모델로 삼아 추가로 자동차 직훈련원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훈련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교육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교육 부문과 산업 부문과의 조화로운 인력개발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실시 이후 양성된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정부가 초기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가야 직업훈련원은 2009년 개원 이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5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재학생까지 포함하여 6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본 훈련원을 통해 숙련 기능 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평균 63%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질의 노동력은 따가야 공단이라는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경제 성장 및 2, 3차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 사업의 경우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1차 사업에는 없었지만 신속하게 수요가 높은 주조공과를 2차 지원 사업을 통해 구성하여 별도 건축 없이 기술협력 및 기자재 지원으로 이루어진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배출로 주조(주물)분야 기능·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기반사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동 산업단지와 훈련원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훈련원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4) 정규과정: 엔진정비, 자동차전기전자, T/M 및 새시, 차체수리 및 도장  
특별과정: CAD/CAM(자동차제조기술), 자동차검사

운영에도 기여하였다. 1차사업의 경우, 수원국이 현지 실정에 맞게 건축신축을 직접 실시하여 조기완공 및 품질도 우수 하였으며, 대신 실습기자재 등에 보다 많은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건물의 조기완공으로 전문가 파견이 1개월 앞서 추진됨으로써, 초청 연수생 귀국시기와 맞물려 효과성이 배가될 수 있었다.

또한 동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사업 주무부처인 주재국 공업부의 따가야 직업교육훈련원, 마그웨이 자동차 기술훈련원 사업에서 건축 담당, 기자재 통관, 훈련원 졸업생의 산업단지 내 취업보장에 매우 적극적인 수원태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위험요인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원국 정부의 사업소관 부처의 주인의식과 장차관급 등의 사결정권자들의 수원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미얀마 정부는 국가개발비전(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Vision 2011~2020)을 통해 인적 자원 개발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천명하였으며, 본 사업은 기술 직업 교육 훈련의 제도적 역량 강화, 정책 수립 및 실행 지원, 교사 양성과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원국 정부의 직업 교육 훈련 정책과 부합한다.

미얀마 정부가 실행정 수도를 네피도(Naypyidaw)로 옮기면서 인근 지역인 따가야 지역에 공단을 건설하였고, 이에 공단과 연계할 직업 훈련 학교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므로 따가야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원 건설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직업교육훈련원의 지속가능성은 관련 산업 단지의 입지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직업교육훈련원 사업의 입지 선정 시 주변 산업 단지 성장 가능성, 수원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 사회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능한 한 최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즉, 직훈련과 같은 교육훈련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곤, 만달레이(Mandalay), 바고(Bago), 사가잉(Sagaing), 산(Shan), 아예야르와디(Ayeyarwady)와 같이 산업기반이 우수하고 인력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양질의 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따가야 지역 자체가 낙후된 농촌 지역이고 대중교통이 없어 네피도나 인근 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양질의 교사 인력의 타 지역 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 및 교직원들을 위한 타 지역으로의 통근 교통편 제공, 오지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한 따가야 공단의 생산성 저하는 학생들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교사 선발 제도 및 교사 순환 제도는 따가야 직업교육훈련원의 교사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수 방법, 교재 개발, 요구 분석, 교육 과정 개발, 생활 지도 및 학습 지도 등과 같은 soft skill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직업교육훈련사업 역시 여성과 장애인 등 수혜계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취약계층 대상 직업교육훈련원의 시설과 시스템은 매우 수준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및 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원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면 타 공여 기관 보다 비교 우위가 있으며 미얀마 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훈련 시설을 공여할 경우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에서는 훈련시설(직훈련원)을 공여 받은 이후 훈련 시설 운영예산 부족 등으로 장비 가동률 저하 및 충분치 못한 실습재료의 수급으로 인해 교육훈련의 질적 수준 저하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사업발굴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ICA가 인도네시아, 가나, 베트남 등 개도국 진출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진출 개도국에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CSR 사업”으로 대표되는 PPP 사업형태로 추진 할 경우 교육훈련 과정 관리와 졸업생의 취업 알선 등을 참여 민간 기업에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질적 수준관리 및 성과를 제고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로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한국기업들이 미얀마 진출을 검토하면서 PPP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sup>5)</sup> 한국기업의 필요인력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원 건립사업 지원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3.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 가.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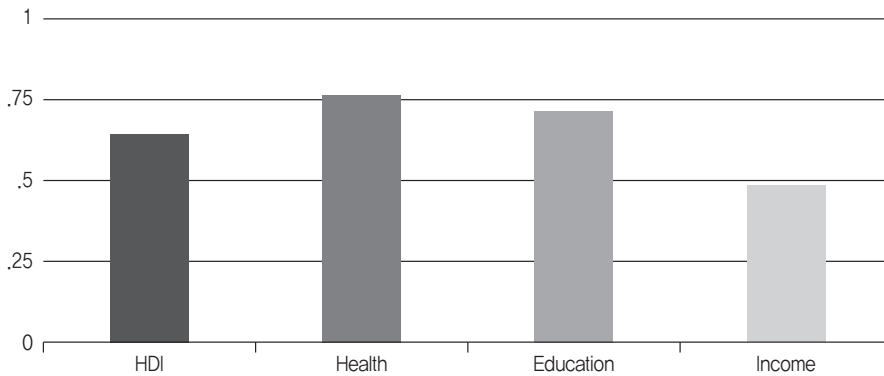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5년까지 주요 MDGs를 이행하고 빈곤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07년 8월 국민후생개발전략(WIS)을 수립·승인하였다. WIS I(2008~10)를 통해 경제 성장 및 경제 다변화, 고용 및 소득창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전략으로 인적자원개발부문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포함,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WIS II(2011~14)를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지속가능 성장 진전, 고용 창출, 복지 증진, 산업현대화,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는 국민복지증진 대책을 강구하였다.

특히 노동집약적 경제 개발, 고용 및 소득창출 기회 확대를 강조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청년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기반 제공, 엔지니어링 및 기술 분야 교육 이수 근로자 확대, 정보기술 확산, 직업교육훈련 강화, 해외대학의 설립 유치 등 인력개발 투자 확충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업발전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산업구조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조업 부문 육성 추진, 인프라 개발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경제·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 노력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부분 정규학제의 기술직업교육 훈련기관은 시설이 열악하고 이론에 치중한 학과과정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며, 미취업자, 실업자 및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5) 최근에는 삼성건설과 동아제약이 미얀마 진출을 준비하면서 KOICA의 “글로벌 CSR 사업” 형태로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미얀마 지역사무소와 협의한 바 있다.

&lt;그림 2&gt;



출처: Internation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UNDP 2011

우즈베키스탄 빈곤률은 '03~'09년 기준, 전체 인구 중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sup>6)</sup>이다. 저임금 직종 취업이 빈곤과 연계되는 '취업빈곤(working poor)'현상을 나타내며, 특히 공공분야, 농업분야 및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빈곤층을 주로 형성하고 있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는 '05년 0.588에서 '11년 0.641(세계 115위)로 다소 향상되었으나, 세계평균(0.682)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전체 인구 중 약 43%가 16세 이하 청소년층으로 향후 노동인구의 급증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교육 강화 및 고용 창출이 시급하다.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인구 중 해외 송출 인력 비율은 약 7%로, 주요 송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이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해외 취업이 증가하여 해외송금액이 GDP의 약 10~17%('07)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기에 있어 산업화에 필요한 교육역량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육성 및 숙련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균형적 산업 발전, 기존 산업의 고도화, 수출잠재력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산업발전 5개년 계획(2011~2015)을 수립하여 약 259개 산업분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하는데 있어 현재 우즈베키스탄 노동시장이 직면한 주요 문제점은 수요 대비 비숙련 노동인력의 공급과잉과 노동인력의 교육 및 기술수준이 낮아 수출산업에서 요구하는 노동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KOICA는 지역별 중점 육성 분야, 산업 및 기능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수준의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확충 등 직업교육훈련 인프라 강화, 교육대상별(비정규학제·재취업자 등) 맞춤형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 분야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 내 직업교육훈련이 이론에 치중한 점을 감안, 실습에 중점을 둔 현장 중심적 교육훈련과정 제공을 위해 기존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리모델링 및 필요 시 부속시설

6) Uzbekistan at a glance, 세계은행 2011

신축하였다. 주요 학과별(자동차, 전기, 컴퓨터, 건축, 기계, 봉제 등) 효과적 실습을 위한 교육훈련장비 및 기자재 지원하였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가 파견 및 국내 기술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실용적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교사 양성, 현직교사 재교육, 장·단기 교사연수 및 직훈 행정 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교사 및 직훈 관리인력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직훈분야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관련 제도 및 정책, 시설 운영 및 관리(비정규학제 직업훈련기관 등), 산학·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자문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 나.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프로 젝트 개요	배경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의 선진 직업교육훈련 시스템과 현대화된 기자재를 지원받아,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숙련된 기술·기능공을 양성하고자 동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 음	
	목적	한국의 성공적 산업화 과정에 기반이 된 직업교육훈련 경험 전수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원원 관리자 및 교사에 대한 초청연수와 국산 기자재 및 관련기술 정보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한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질적 개선사업에 기여 하고자 함	
사업 목표	최상위 목표	1. 지속발전 가능한 직업교육훈련원 건립 2. 실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기능 인력 양성 3. 직업교육훈련원에 대한 효과적 운영과 산업체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	
	중기 목표	1.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2. 한국 취업 근로자직업능력 향상	
	단기 목표	1. 현지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원의 건립 2. 산업체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고 실업자에게 직장 제공	
사업 내역	한국	PMC 역할 수행	세부사업계획 수립, 장비 목록 및 세부사양 확정, 훈련 시설 건축 자문 현지 출장을 통해 프로젝트 현지조사, 건물시공 및 장비 설치 확인 기자재 사양 작성, 입찰지원,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업무 수행 총괄 현지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추진
		기자재 지원	기자재 선정 및 지원 방안, 사양 작성, 입찰자문, 검수 기자재 배치 계획 수립 및 설치, 운용 교육 기자재 지원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수립 및 관리
		훈련시설 건축	훈련시설 건축 관련 자문 건축 설계 시 고려 사항 제시
		전문가 파견	사업 관리자 파견: 3회 각7일(총9명)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수석 전문가(3개월, 1명), 공과별 전문가(2개월, 4명)
		교재 개발	직종별 전공 교재 개발(전기전자/자동차/기계/IT직종) 우즈베키스탄 교사 및 전문가와 검토 회의를 통한 개발

구 분		내용	
사업 내역	한국	초청 연수	직업교육훈련원, 교과과정개발, 전공실기능력향상, 교수지도방법론등에중점을두고, 적격자를선발하여연수(영어가능자로선발)-관리자과정(6명, 2주)-교사과정(11명, 1개월) 훈련교사과정은 산업현장에서의 응용 가능한 실기 위주의 교육 지원기자재의 효율적인 운영, 교재개발 등의 기술전수를 연수과정에 포함
	수원국		설계 및 시공 절차 추진 / 한국국제협력단에서 CM을 통해 관리 직업교육훈련원 건립부지 제공, 전기·수도 등 기본 인프라 제공 공사부지에 대한 토목 및 조경 공사 교육훈련기자재 공여에 따른 각종 세제면제 직업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한 인력제공 및 예산지원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제IV장

## 다. 사업성과 분석

동 직업교육훈련원은 취업기회의 확대, 취업자들의 소득 증대 효과에 기초하여 우즈베키스탄 경제적 기반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국가기술자격증 제도 도입 등의 교육수준이 향상될 경우 우즈베키스탄 내 직업교육훈련원의 최초의 모범적 사례로서 전문적인 기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제사업의 시행 결과 1기 졸업생 238명 중 93.3%가 취업한 것을 확인하였다. 입학자의 자격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실직자인 점을 감안하면 고용 유발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1기 졸업생들 중 입학 전에 소득이 있었던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 한하여 직업교육훈련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월 평균 소득액을 비교하여 본 결과, 월평균 475,000숨(cym, 우즈베키스탄 화폐단위)에서 665,625숨(cym)으로 증가하여 40%이상의 소득증대 성과를 달성하였다. 입학 전 대부분의 학생이 소득이 없는 실직자인 것을 감안하여 졸업 이후 취업으로 인한 총 소득증가액을 추계한 결과 1기 훈련생의 경우 월 99,498,000숨(cym), 연간 1,199,772,000숨(cym)에 달하고 있는 바, 본 직업교육훈련원의 운영과 교육과정이 교육이수자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성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분석해 보면 첫째, 동 훈련원이 이론보다는 실습교육위주로 구성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기회 확대에 초점을 둔 장기 교육개혁 추진을 통해 국가인력양성프로그램(NPPT: The National Program of the Personnel Training System)을 수립하였으며, 전문기술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실습교육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취업 연계 강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기존 정규학제의 기술고등학교(kolleji)는 시설이 열악하고 이론에 치중한 학과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반해 KOICA의 직업교육훈련원은 전문실습기회의 확대 및 미취업자, 실업자들에게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책에 매우 부합한 정책이었고 이것이 동 훈련원 사업의 성공요인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성공요인은 동 직업교육훈련원이 운영하고 있는 학과들은 우즈베키스탄 산업수요에 적합한 학과들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동 훈련원 기획이후에 수립된 우즈베키스탄 산업발전 5개년 계획(2011~2015)에 부응할 수 있는 융집기술과 기타전문적인

산업기술 등의 추가 학과를 개설하는 등 정책과 산업수요에 맞는 유연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교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산업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학·관 연계시스템의 강화는 여전히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기술수요 조사’라는 주제로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원과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경제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들과의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 계획 등에 부합하는 기술수요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원의 훈련과정 개선과 산학협력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원의 운영재원은 우즈베키스탄 고용촉진기금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원이 노동사회보장부 산하의 법적조직이며, 직업교육훈련원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바, 직업교육훈련원의 운영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작성 및 산·학·관 연계시스템 도입 시 본 직업교육훈련원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KOICA는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성과중심 사업수행을 위해 향후 직훈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기획조사 시 성과지표 선정율, 그리고 사업수행기관(PMC) 선정이후 PMC에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고려한 기초 조사(baseline survey)를 수행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 분야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 데이터 수집을 PMC로 하여금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동 직업훈련원 교육과정은 당초 사업계획 상으로는 정규과정의 경우, 1년제 주간과정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론과정(1학기 3개월, 2학기 3개월), 4개월 산업체 실습교육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경은 직업훈련원의 입학자격인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이 6개월 간 지급되는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계획 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사업기획단계에서의 수원국 직업교육훈련 분야 이슈, 체계, 거버넌스 구조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 4.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 가.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현황

베트남은 총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노동력 공급이 풍부하고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발전의 잠재적 가능성이 큰 인구 구성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높은 편이고, 전체 실업자의 70% 이상이 신규 실업자이며 10대, 20대의 실업률이 전체의 약 68% 정도로 청소년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기술이 없는 청소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이 시급하다. 직업 자격과 관련하여, 2007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미숙련으로 약 65.3%가 직업교육훈련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약 70.9%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못하여, 남성의 59.9%와 대조를 보인다. 소수민족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5.2%로 베트남 주류민족 청소년 21.2%보다 훨씬 낮는데, 소수민족의 직업훈련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훈련기회와 훈련비용의 부족에 기인한다.

베트남의 숙련 노동력 부족은 외국인 투자의 주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베트남의 숙련 노동력 부족을 호소한다. 실제로 World Bank가 2005년 실시한 투자환경평가에 따르면 근로자의 숙련과 교육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요 장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World Bank 평가에서 베트남 노동력의 질은 3.79점(10점 만점)으로 아시아 12개국 가운데 11위이다. 특히 베트남에서 부족한 숙련 인력은 주로 중간기술자, 엔지니어 및 중간 매니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문 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인력양성 공급시스템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타 아세안 국가와 비교할 때도 인력채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산업화가 가속될수록 숙련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숙련 노동력의 부족이 2·3차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표 1> 베트남 산업 구조별 취업 구조 변화 추이

(단위: %)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	65.3	57.9	56.7	54.7	52.2	52.6
제조업	12.4	17.4	17.9	18.3	19.2	20.8
서비스업	22.3	24.8	25.4	27.0	28.6	26.6

이에 베트남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직업훈련(MOLISA) 비중도 4.9%에서 9.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부 정책이 인적자원과 직업능력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2011~2015는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숙련된 고급 노동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 및 전문 인력 개발을 중요한 축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전략 2011~2020(The Voc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 (Decision 630 /QD-TTg, 29/05/2012))’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직업훈련의 양적, 질적, 수준에 있어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아세안에서 개발선진국의 훈련수준까지 끌어

올려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위한 훈련 확대를 통해 노동력을 재편 및 사회 안정망 확충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2011~2015년까지는 고급수준의 직업훈련을 통해 2.1백만 명을 양성하고, 기초직업훈련과 3개월 미만의 훈련을 통해 7.5백만 명, 이 중 4.7백만 명은 2020년까지의 농촌근로자의 직업훈련 사업을 통해 양성한다. 2016~2020년까지는 고급수준의 직업훈련을 통해 2.9백만 명, 이 중 10%는 국가수준, ASEAN수준, 국제수준에 도달하도록 양성하고, 기초직업훈련과 3개월 미만의 훈련을 통해 10백만 명(Project 1956의 계획에 따른 5.5백만 명의 직업훈련보조인력 포함)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훈련시설 증설(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 포함), 국가기술자격제도 수립 등의 계획도 수립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대급부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산업재해방지 및 사후 보상체계 수립 등 노동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 산업안전청의 발표에 의하면 산업재해 건 수는 6천여 건 수이며, 매년 산업재해는 17%씩 증가 추세인 바, 산업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사후 보상하는 제도를 통해 개인·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원조기관과 국내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 산업계의 인력수요 및 특성을 고려한 중·대형 규모의 기술대학 및 직업교육훈련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사관련 정책(자격기준, 채용 및 고용보장 관련) 및 교육과정 개발 자문, 장단기 교사연수(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활용) 등을 통해 교수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학교운영 관리,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교류협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나.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베트남 산업기술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사업목적		직업훈련 기반구축을 지원하며,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사업 내역	아국	○ 시설 건축(950천불)      실습동 건축(1개동/ 약 3,400㎡)
		○ 기자재 지원(800천불)      냉동, 자동차공과 등 7개 공과 교육기자재 지원
		○ 연수생초청(340천불)      공과별 직업훈련교사 파견/ 10명 3개월
		○ 전문가파견(160천불)      2개 공과 및 학교운영 컨설팅 전문가/ 3명/ 3개월
		○ 기타(50천불)      사전조사, 실시협의 및 예비비 등
	수원국	○ 건축부지 제공, 인프라구축, 인력지원 등
사업대상지역		○ 응에안성 빙시(Vinh City, Nghe An Province)
사업규모/기간		○ 2007~2008(2년)/ 2,300천불
수혜자		○ 인근지역 청소년, 실업자 및 기술인력

구 분		내 용
기대 효과	아국	신기술 전수를 통한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 및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
	수원국	직업훈련분야 기술향상과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경제발전
사업 시행 기관	아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원국	응에안성 인민위원회(The People's Committee of Nghe An Province) 노동부 직업훈련청

구 분		내 용	
사업 명		베트남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목적		국가 기술자격 검정 기준 및 관련 법률과 제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자문을 통한 베트남 직업훈련 시스템 개선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 기여	
사업내용		국가자격 검정시행에 필요한 법체계 및 기준설계 자문, 전기전자분야 3개 직종 기술자격 검정 모의자격검정 시행, 국가자격검정 시행기관 설립 마스터플랜	
양국 부담 사항	한국	○ 국가자격 검정시행에 필요한 법체계 및 기준설계	-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 자문 - NOSS에 대한 전반적 자문 및 3개 직종 자격제도 시범설계 지원
		○ 3개 직종 모의검정	- 전기전자분야 3개 직종 기술자격 검정 모의자격검정 시행
		○ 국가자격검정시행기관 설립 마스터플랜	- 자문전문가 그룹 단계별 파견 및 국내외 워크숍을 통한 마스터 플랜 수립
		○ 연수생초청	- 관리자과정 및 실무자과정 약 40 명 내외
	베트남	○ 국가직무능력표준 NOSS(National Occupational Skill Standards) 설계 및 개발 ○ 지원 기자재 설치 장소 제공 및 인프라 구축 ○ 기자재 통관, 면세, 자국내 운송비 부담 ○ 프로젝트 수행 관련 각종 행정 편의 및 인력 제공	
사업대상지		○ 베트남 하노이, 수혜지역은 베트남 전역	
사업규모/기간		○ 150만불/2010~2012(3년)	
수혜자		○ 직업훈련학교 및 훈련센터 학생 ○ 교사 및 교육관계자, 관련산업 기업체	
기대 효과	한국	○ 한국 및 베트남 양국 협력 증진	
	베트남	○ 베트남 내 자격검정시행기관 설립과 제도 구축을 촉진하고 향후 베트남 정부의 고급 기능인력 관리역량 강화 지원	
사업 시행 기관	한국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베트남	○ 베트남 노동부 및 직업훈련부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구분		내용					
사업 명		○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 사업					
대상국가(지역)		○ 베트남 (하노이)					
사업 목적		○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체제 확립 및 재해예방 기술수준 향상					
사업규모/기간		○ 340만 불/ 3,842백만 원 / 2013~2014 13년: 437백만 원/ 14년: 3,405백만 원					
양국 분담 사항	한국 (KOICA)	기자재 (229만 불/2,588백만 원)	○ 산업안전교육센터 교육설비 - 3D Projection 시설, 산업안전보건 실습 기자재, 크레인 등 건설체험 교육장비 및 차량 2대				
		전문가파견 (30.5만 불/344백만 원)	○ 산업안전보건 전반계획 자문 1명 24개월 ○ 분야별 전문강사 11명 2주 2회 ○ 기자재 설치 및 자문 5명 2개월				
		초청연수 (28.5만 불/320백만 원)	연수 내용: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 분야 강사 및 전문인력 양성				
			연수 대상국가: 베트남				
			연수 대상자 및 연수자수: 25명 (22명 일반강사, 3명 전문강사)				
			연수 기간 및 소요 예산: 147백만 원				
		연수 실시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과정개발 (40만 불/453백만 원)	○ 11개 신규교육과정 개발, 교재개발, 워크숍					
	기타 (12만 불/137백만 원)	○ 워크숍(착수, 중간, 종료평가) 및 모니터링 등					
수원국		○ 부지확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행정인력 지원 등 6,780백만 원					
성과 관리	산출물 (OUTPUT)	○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공과별 안전보건교육인력 배출					
	성과물 (OUTCOME)	○ 동 훈련센터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질적 수준 향상					
	성과 지표 및 설명	○ 교육 이수자의 교수능력향상 및 수혜자 만족도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3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3	2014			
교육이수자 교수능력 평가		-	90%	MOLISA 평균수준	교육이수자 교수능력 평가 평점	MOLISA 조사결과	
	교육이수자 소속기관 산업노동자 만족도	-	90%	OSHTC 평균수준	산업노동자 설문조사 고용주 설문조사	OSHTC 조사결과	
우리측 기대 효과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모델적용 . 보급 ○ 주재국 국가발전계획 지원을 통해 원조일치 및 효율성 제고 ○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제고 및 양국 협력 증진					

## 다. 사업 성과분석

베트남의 산업기술학교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실습이 70%, 이론이 30%로 실습비율이 높은 이상적 학과구조를 가지고 있다. 평균 취업률이 90%로 수료인원 중 기계, 산업설비, 자동차정비, 전기과는 약 95%이상 취업되었다. 졸업생이 호치민과 하노이, 하이퐁 공업단지와 학교가 소재한 응에안성 산업체에 취업하였고, 한국으로 총 600여명의 졸업생이 취업하는 등 일부 졸업생은 대만, 중국, 호주 등지로 송출되기도 하는 등 산업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의 취업이라는 유인체계와 한국어교육 활동, 사업투입인력의 역량과 열정, 한-베측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제도 구축을 위한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전체 제도 구축 사업의 경우 교육훈련부와 노동보훈사회부가 각각 기술교육, 직업교육훈련을 총괄하고 있는 바, 관련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형성단계에서 관련 부처 간의 의사결정 거버넌스 등 이해관계자 분석 및 관련 부처 간 컨센서스가 명확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역량, 의지와 권한을 보유한 수원국 시행기관을 파트너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스터플랜 및 국가표준체계 마련, 법안마련 및 검정운영기관 설립 등 직업교육훈련 제도 구축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경험의 일방적 전달은 수원국 현실에 맞지 않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제 개발 시, 현지 문제은행을 활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과거문제를 그대로 번역한다던가, 자격검정 관련 법안을 우리나라 법안을 그대로 활용한다던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컨설팅 사업의 경우 더더욱 PMC 기관 및 참여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하고 현지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고, KOICA의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최종 산출물 검수 시 계약 이행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 사업과 베트남 산재전문가 양성 국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경제성장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산업안전보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향후 산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후적 관리역량까지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베트남 노동인력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양질의 직업 확충과 접근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3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KOICA는 교육분야 지원전략을 통해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통해 현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며, 개인의 기술능력을 제고하여 빈곤감소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상위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세부목표를 13개를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대다수가 13개의 세부목표중 주로 직업훈련기회의 양적확대 목표에 치중하고 있는 바, 직업훈련환경 개선, 직업훈련 참여 격차 해소, 직업훈련과정 개선, 직업훈련 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직업훈련 교수법 개선, 직업훈련재원의 안정적 확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도입 등 수원국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들을 정확한 문제분석, 이해관계자분석을 통해 수원국 맞춤형 사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노동시장 정보를 통해 인력수요가 큰 분야를 판별하고, 동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한다. 직무능력표준 개발 후 평가표준, 교육훈련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교육훈련 표준과정을 개발하여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거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국가는 개발 내용을 검토 후 직업훈련교육 기관에서 실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한다.

이러한 단계를 따름에 있어서 상기 3개 사업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교훈들 위주로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향후 직업교육훈련 분야가 CPS상의 중점분야일 경우, 해당 수원국의 분야 이슈, 체계, 거버넌스 구조 등을 사업형성기획단계에서 고려해야한다. 만일 수원국의 전략 또는 정책이 부재할 경우에는 최소한 노동수요 분석은 실시해서 사업의 적절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사업기획 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분야 및 기술 수준을 파악하는 노동시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종료이후에도 지속적인 산업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공과를 유연하게 변경하여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사업추진 시 수원국 또는 타 공여기관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여부를 조사하여 이에 부합되거나 차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재를 개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어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어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수혜자 관점에서 검토하여 향후 수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의 무·유상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바, 사전에 사업기획 시 시설 건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는 유상으로 기술협력은 무상으로 추진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사후관리의 경우에는 WFK 봉사단이나 글로벌연수 프로그램, 민관협력 등 글로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훈련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개도국 직업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양질의 직업교육훈련 교사의 양성과 처우개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교사향상 훈련센터를 건립함은 물론 많은 이들이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business)의 개발에 대한 영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산학협력을 위한 토대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제도적 측면에서 산학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발굴을 추진하며, 공동 교육훈련 과정개발, 인턴십 프로그램 등 수원국의 지역 클러스터 산업과 직업교육훈련 기관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현지 훈련교사 및 훈련생들은 파견전문가의 언어 문제와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견하는 전문가들은 현지 언어, 문화 등에 익숙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러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바, 해당국가 경험이 있거나, 언어가 되는 젊은 JPC(초급컨설턴트)나 PAO(실무전문가)를 함께 파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 분야 외에 수원국의 발전단계, 현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외에 취업을 포함한 노동시장,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사업까지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지속가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졸업생의 경우 산업수요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갖추고 고용환경이 개선되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수원국의 양질의 직업창출과 빈곤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I장

개발협력이슈

제II장

제III장

제IV장

## 참고문헌

한국국제협력단(2012), 직업훈련 분야 ODA 통합추진전략 연구

한국국제협력단(2013),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합평가 보고서: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2012), 직업훈련 개발협력 프로그램 연구

김성규 (2013), 개도국 청년고용정책과 ODA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형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201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종료평가

한국국제협력단(2013), 미얀마 따가야지역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2011)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

관계부처 합동(2012) 우즈베키스탄 협력전략 2012~2015

한국국제협력단(2013), 미얀마 무상협력 실행전략 보고서

UNDP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